

대진대 교수협의회 교육부에 감사 요청

“교수협의회장 직위해제는 교권침해” 주장

지난 92년 설립해 경기북부지역 인재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정달영)는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진대학교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대진대학교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교수일동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대진대학교 혼란의 원인이 학교법인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인이사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학교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이 사정과의 대화를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학교법인은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난해 12월 17일 직위해제 한 후, 역지로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법인 박 모 이사장이 교수협의회장 징계를 진행하려 했

으나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에 위촉된 3명의 이사와 몇 명의 교수들은 적절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사퇴함으로써 지난 2월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구성시도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정관에 명시된 징계의결기한인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학교법인은 스스로 학교정관에 명시된 이와 같은 규정과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역지로 징계위원회를 결성하여 징계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대진대학교의 고질화된 문제점들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

이 과정에 대해 홍기형 대진대학교 총장은 “법인이사회의 교수협 회부에 대해 정달영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은 “법인이사회가 총장에게 압력을 넣어 징계제정을 요구한 것은 엄연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법인이사회의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진정서는 ▶법인과 이사회의 비리 및 전횡사태▶학교법인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의 학교행정 유린 사례와 비리의혹▶총장 및 학교행정의 문제점들을 자료로 첨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위원교육

대진대 허훈·충북대 강형기 교수 강연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주민자치센터의 본질과 운영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장과 주민자치위원 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지난 25일 실시된 교육은 포천시청 직원 3명과 일동면, 영북면, 화천면, 포천동 담당자명과 주민자치위원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자치 의식 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정착 및 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의 ‘주민자치센터의 본질과 운영방법’ ▶충북대

학교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의 ‘연대하는 주민과 주민자치’란 주제로 강연이 실시됐다.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는 ‘주민자치센터의 본질과 운영방법’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 운영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민학습 ▶정보교류 ▶협동경제 활동 ▶지역복지 ▶문화여가 등을 펼칠 수 있는 장소다” 말했다.

또 “▶주민참여 ▶민관의 상호협력 ▶지역의 자원에 연계한 활동 등의 운영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의 ‘연대하는 주민과 주민자치’란 주제의 강연에서는 “도시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연대감의 상실로 인한 주민의 고립화와 대인관계의 비인간화가 기본적인 사실로 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존문화를 재구축하며, ▶시민들의 연대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 ▶주민의 참여와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주요 처리의 올바른 역할 때문에 대한 기중제시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있어 시민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 다 ㉓

관인면 초과리2리 이장 박연수

노인회 중심의 화합이 마을발전 원동력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2리는 관인시내에 인접한 마을로 영북면에서 지방도 339호선을 타고 관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초과리2리는 유교적이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마을로 특히 게이 트블이 활성화돼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노인들의 왕성한 활동이 돋보인다.

이 마을은 최근 마을에 경제정리사업으로 주민모두 분주히 보내고 있다.

올해 2월 1일부터 초과리2리의 이장으로 임명, 현재 120여 가구 400여명의 주민과 선진화된 농촌마을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박연수(45·사진) 이장으로부터 마을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박연수 이장에 따르면 “6·25 이전의 원래 마을은 현재 6사단 통신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고안(林氏), 셋밭(鄭氏), 남창(朴氏), 양짓말(徐氏)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전쟁이 끝난 후 부대가 들어서게 되고 이들 집성촌이 자연스럽게 현재의 오금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마을 유래를 밝혔다.

초과리2리는 지역의 어느 마을보다도 노인공정과 노인회를 중심으로한 마을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의 구성은 노인회(회장 이갑형)와 청년회(회장 전동진), 부녀회(정운경)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 이장은 “45명으로 구성된 노인회는 평소 마을청소, 제초작업 등 마을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회는 마을의 경·조사시 굿을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부녀회는 마을의 전반적인 사안을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을 부녀회는 관내 어느 농촌마을과는 달리 젊은 층이 많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장은 노인회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며 “노인회는 주로 마을에 건립된 마을 쉼터와 마을회관 옆에 마련된 게이트볼장에서 친목을 다지고 있는데, 방학때면 서예공부방을 운영해 방학 때 마을뿐만 아니라 고향을 찾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리2리는 마을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에게 주는 선물인 “전통적으로 마을을 방문하



박연수 관인면 초과리2리 이장

는 귀한 손님에게는 마을 어른들이 짚을 엮어 직접 만든 짚신과 종대기, 대리키 등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며 “선물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전통을 이어가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과리2리는 마을 경지정리로 마을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 이장은 “지나해 12월 22일부터 착공된 경지정리사업은 시기가 조금 늦춰져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추곡수매가 사라지고 소득원으로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을 주민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과리2리의 경지정리사업은 총 16만평의 경지를 1천200평씩 정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초과리2리의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논농사와 친환경 농법의 무공해 콩과 조, 수수, 팥, 들깨 등을 5만여평에 재배하고 있으며 마을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경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풍물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을 포천시에서도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티뷰 읍·면·동장 ㉔ 내촌면 맹한영 면장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기반확충 절실

고향의 이미지 심어주는 친근한 내촌면 건설



맹한영 내촌면 면장

입지한 지역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베어스타운리조트와 서운동산이 소개하고 있다.

내촌면의 2004년 12월 기준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및 가구는 2천187세대 5천507명 ▶면적은 52.74km(농경지 6.25km, 임야 40.55km, 기타 5.94km) ▶법정리 67개리(진목, 마평, 읍현, 내, 소하, 신평)와 자연

부락 21개리 39개반 ▶행정조직은 3개의 담당부서 15명(일반직 14명, 기타1명)과 농업기술센터 1개 지소, 보건지소 1개소 ▶학교는 2개교(내촌초등학교 427명, 내촌중학교 216명) ▶기업체 총248개 업체 2천 600명 ▶차량 2천480대(승용 1천305대, 승합 242대, 화물 928대, 특수 5대)로 나타났다.

1975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 포천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 내촌면장으로 부임한 맹한영 면장(50·사진)은 “내촌면의 현황 및 역점사업에 대해 들었다.”

맹한영 면장은 “내촌면의 특징은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로 스키장과 골프장, 폰도 446실이 갖춰진 베어스타운과 5만평의 관광농원으로 우리나라 관광농원 1호인 마평리의 서운동산이 위치 ▶포천시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도 47호선(내촌-이동)과 국도 87호선(내촌-포천), 국도 56호선(신평-군내) 등으로 크게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좋은 여건 속에서 내촌면 주민들은 포천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인

욕구가 매우 높게 반영되고 있지만, 관내에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문화공간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맹한영 면장은 “지역의 학교체육시설과 체육기반시설이 미흡해 생활체육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며 “문화시설의 기본으로 우선 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생활체육시설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내촌면은 내리 521·4번지 일원 7천 484㎡의 부지에 건평 400평에 25억의 예산으로 체육관건립을 추진중이다.

맹한영 면장은 “내촌에는 경로당이 13개 소인데 포천에 널리 퍼져있는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들이 없다”며 “내리에 150평규모의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러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인

한편 내촌면은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해 경제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맹한영 면장은 “예전에는 지역민 80%정도가 농사로 소득을 올렸지만, 최근에는 종사자가 20%로 급감한 상태”며 “최근에 많은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역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베어스타운과 인근 스키렌탈 상점들이 불황으로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50%이상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한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며 “우선 내촌의 곳곳에 가로환경을 정비해 내촌을 지나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겨울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철에도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가로환경정비 ▶음식점 등이 위치한 시내 거리 정비 ▶마평리 서운동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 등의 계획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내촌면에는 승마장(서운동산)과 당나라 승마장, 잠숫7개의 쉼터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맹한영 면장은 “관내 각종 행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지역 결속력은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며 “포천의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소외감을 조속히 해결하고,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친근한 내촌면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Innovation & Creative SHINHAN

식탁의 혁명 - 웰빙새싹채소 우리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 드립니다

무공해 웰빙 새싹채소 농장

요즘 유행하는 새싹채소는...

씨를 받아서서 그 씨를 먹는 채소를 새싹채소라고 합니다.

식물은 보통 새싹이나 어린잎이 돋아나는 시기에 성장이 완성됩니다.

이시기에는 생명이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새싹과 어린잎이 모여있고 그 에너지가 새싹이나 어린잎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식물들은 완전히 자란것에 비해 영양소 등의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 새싹채소 기르는 방법

1. 새싹채소 재배용기에 물을 담습니다. (물은 정수된 물이나 수돗물을 1일 이상 받아놓은 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용기위에 씨앗 받침대를 올려놓은 뒤 무꼭모나 카친타올로 그위를 덮습니다.
3. 미리 6시간 정도 물에 불려놓은 씨앗을 받침대에 골고루 뿌려준 뒤 뚜껑을 덮습니다.
4. 씨앗들때까지 덮여있던 후 발아기 시작되면 덮개를 벗기시면 됩니다. (삭이든 후 1~2일에 한번정도 재배용기안의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씨를 뿌린 지 7~10일 정도면 거두어 먹습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1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 화기에 주의하시고 높은 열에 주의하십시오.
- 씨는 어린이가 먹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재배하면서 농약이나 기타 살충제 등을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 씨앗이 물에 잠기면 발아하지 못합니다.

-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

1. 품명 : 새싹채소 재배용기 셋트
2. 재질 : 램프PP(폴리 프로필렌)
3. 내열, 내냉온도 : 80℃~-20℃
4. 제조판매원 : 신한케미칼
5.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434-15
6. 반품 교환처 : 제조원 및 판매원
7. 주의사항 : 설명서 참조
8. 규격 : 300×430×160mm



TEL.031-544-0884